

재일교포 이충성 日 영웅됐다

아컵 호주와 결승전 연장 밸리슛 결승골 日 우승 주역

한국, 우즈벡에 3대 2승… 호주대회 본선 출전권 확보

일본이 재일교포 축구선수 이충성(26·일본명 리 다나리·사진)의 연장전 결승골을 앞세워 낙적 호주를 누르고 역대 아시안컵 최다 우승(4회)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은 3-4위 결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3-2으로 꺾고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일본은 3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호주와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결승에서 연장 후반 4분 터진 이충성의 기막힌 밸리슛 결승골을 앞세

위 1-0으로 승리했다.

특히 연장 전반 7분에 투입된 이충성은 이번 대회 두 번째 출전에서 A매치 데뷔골이자 우승을 부르는 결승골을 작렬하며 특급 조커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충성은 2004년 한국 U-18 대표팀에서 소집됐던 경력을 가진 재일교포 축구선수다. 하지만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2007년 고심 끝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며 '다나리'라는 일본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일본으로 귀화한 이충성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본 올림픽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고, 아시안컵을 앞둔 알베르토 카제로니 감독의 러브콜을 받으며 A대표팀에 처음 호출했다.

이충성은 요르단과 1차전에 교체출전하며 A매치 데뷔전을 치렀지만 이후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벤치멤버로 첫 번째 아시안컵을 끝낸 뼈 한 이충성은 호주와 결승전 연장 전반 4분 지친 미에다를 대신해 카제로니 감독으로부터 출격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연장 후반 4분 나가토모 유토가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그림 같은 밸리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냈다.

일본의 스트라이커 혼다 게이스케(CSKA



모스크바)는 박지성, 마크 슈워처(호주), 세레스 라제파로프(우즈베키스탄)를 누르고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51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은 실패했지만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9일 카타르 도하의 알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4위 결정전에서 전반 터진 구자철(제주)과 지동원(전남·2골)의 연속골로 알렉산더 게인리히가 두 골을 만회한 우즈베키스탄에 3-2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2007년에 이어 두 대회 연속 3위를 차지한 한국은 2015년 호주에서 열릴 제16회 대회 본선 자동 출전권도 확보했다.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3위에 오른 축구대표팀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귀국하며 환영하는 수백명의 팬들에게 싸여 있다.

/연합뉴스



5골 구자철 득점왕·한국팀 페어플레이상

'아시안컵의 스타' 구자철(22·제주·사진)이 득점과 어시스트 부문을 훌륭했다.

구자철은 3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끝난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해 2개 부문에서 모두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득점 1위에게만 공식 시상을 한다.

시상식은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호주의 결승전이 끝난 뒤 열렸으며 이날 오전 독일로 먼저 출국한 구자철을 대신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대리 수상했다. 부상은 상금 1만 달러와 코니카 미놀타 카메라

1대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컵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1960년 조운욱, 1980년 최순호, 1988년 이태호, 2000년 이동국에 이어 구자철이 다섯 번째다.

득점왕을 배출한 한국 대표팀은 이날 시상식에서 페어플레이상도 수상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기술연구그룹(TSG)

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나라들의 경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페어플레이상 수상국으로 결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독일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월드컵에서도 3위의 성적을 내며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행가래 받고 국가대표 떠난 이영표

"후배들에게도 격려와 사랑 부탁합니다"

'조롱이' 이영표(34·알힐랄)가 11년 7개월 동안 입었던 국가대표 유니폼을 반납했다.

이영표는 29일 아시안컵 축구대회 3-4위전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를 마친 뒤 "긴 시간 동안 대표팀에서 뛰면서 응원해주신 팬들께 고맙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도 저에게 그런 것처럼 힘들 때마다 사랑과 격려를 보내달라"며 "대표 생활을 하면서

2002년 하일월드컵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라고 말했다.

강원도 충현 출신인 이영표는 안양공고와 건국대를 졸업했으며 2000년 프로축구 안양 LG(현 FC서울)에 입단했다.

A매치 데뷔는 1999년 6월 12일 잠실에서 열린 코리아컵 멕시코와 경기에서 했으며 2000년 7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평가전 때 A매치 첫 골을 터뜨렸다.

A매치 통산 기록은 이날 우즈베키스탄과 경기까지 모두 127경기에서 출전해 5골을 넣었다. 한국 선수로는 흥명보(136경기), 이운재(132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A매치 출전 기록이다.

100번째 A매치는 2008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시우디아리비아와 원정 경기였다.

특히 대표팀 은퇴 경기가 된 이날 우즈베키스탄과 3-4위전에서 이영표는 아시



'조롱이' 이영표가 국가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29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 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3-4위전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에서 선수들이 3대2 승리 후 이영표를 헛가래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 통산 16번째 경기에 출전, 15경기에

함부르크(SV)이 한국 은원단 앞으로 가서

이영표를 목에 태우고 인사를 하게 했으며

후배 선수들은 이영표와 박지성을 헛가래

치며 그동안 대표팀에 공헌한 선배의 대표

팀 은퇴를 축하했다.

/연합뉴스

'컴백 퀸' 클리스터스 '황색 돌풍' 잠재우고 우승

(종국 리나)

호주오픈 테니스… 통상 41번째 정상

며 쉽게 경기를 끌어나가는 듯했지만 아시아 선수 최초로 단식 결승에 오른 리나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다.

리나의 날카로운 포핸드와 재치있는 네트 플레이에 허를 찔린 클리스터스는 베테랑답지 않은 실수를 연발하며 역전을 허용해 1

세트를 쉽사리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이내 전열을 가다듬은 클리스터스는 포핸드 공격에 힘을 실어 2세트를 따냈고 3세트에서도 각도 깊은 크로스로 리나를 코트 양옆으로 몰아세우며 2시간6분 만에 결승전을 마무리 했다.

남자 복식 결승에서는 세계랭킹 1위인 미국의 쌍둥이 복식 조 마이크-볼 브라이언이 인도의 마헤시 부파티-리안더 페이즈를 2-0(6-3 6-4)로 누르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클리스터스는 경기 초반 첫 2게임을 따내

/연합뉴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금 매매

▶서구 마륵동, 생산녹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 출 농협7억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 15,818㎡(4,784평) 전용 되어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쌓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 2,191㎡(6,629평) 매매가 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기기자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 12억원

■ 본 광고물은 전 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NH농협광주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차고지 임대구함

면적 2,000㎡(600평)정도, 상업, 주거3종.

준주거, 자연녹지.

상촌동 나대지.m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2,992㎡(905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상담협의, 도시형생활주택, 종교시설, 요양원적

지 일부 분할가능.

산단통 과수원(전원주택 용지)

면적 3,423㎡(1,035평),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갑나무 수와수, 남향, 횡통길변, 관리사 및 창고 허가됨, 전원생활 적합, 매매가 3.3㎡당 15만원.

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건물매매(옹봉지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 367㎡(111평), 3층, 연면적 598.8(181평) 매매가 5억, 보증금 6,000만원 월 330만원, 근린생활시설 입점.

서광주역 뒷 자연녹지.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현재 임야.

010-3616-8698, 062-233-2222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건 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 정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주거지 2160평 공시지가 5억 매도 3억 8천

• 화정동 소보서 부근 4차선도로 342평 공시지가 매도 9억

• 신안동 상가지 310㎡(94) 공시지가 3억 4천 매도 2억 4천

•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 코너